

픽미세대를 위한 자유교육 소고: 천원 오천석의 자유 개념을 중심으로

윤 선 인
(인천대학교)

Education and Freedom for the ‘Pick-Me’ Generation in reading of Chun-suk Oh and Byun-chul Han

SunInn Yun*
(Incheo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paper begins with the notion of ‘pick-me generation’, which refers to today’s young generation in Korea. It is named after the title of a song introduced at the Television programme for the competitive audition for girl-group singers. This name gives an idea of the atmosphere of the competition that the current young generation experiences in South Korea. In parallel to it, the research examines the meaning of freedom and choice in democratic education in Oh Chunsuck, in his later work in particular. This paper attempts to demonstrate the possibility to relate Oh’s notion of freedom and democracy in relation to Han who critically analyses contemporary discourses on neo-liberalism and democracy. This paper re-views Oh’s ideals of democracy and education within its own limitations on freedom. The argument extends Oh’s idea of freedom and ethical democracy to the idea of freedom that is relevant to today’s younger generation.

Key words : Freedom, Chunsuk Oh, Democracy, Byungchul Hahn

I. 서론-천원 오천석과 ‘픽미세대’

65만 2,000명의 취업준비생들이 도서관에, 강남역 학원가에 혹은 노량진에 모인다. 시간당 6,030원의 최저임금과 대학 등록금 1,000만 원 시대. 이들에게 주어진 미션은 9단계다.

학벌과 학점은 기본이고 토익 점수에 오픽과 토익 스피킹 등 말하기도 포함된다. 폭넓은 경험을 자소서에서 풀어내려면 어학연수도 다녀와야 한다. 직무 관련성이 점점 중요시되는 취업 오디션의 세계에서 자격증과 인턴 경험, 공모전 수상 경력은 결정적인 순간 나를 어필할 수 있는 ‘한방’이다. 여기에 봉사 활동으로 인성까지 갖춰야 피라미드의 자리를 기대해볼 수 있다. 혹시 인성에 호감형 인상까지 갖춘다면 더 안전하게 붙을지도 모르니 성형수술도 고려해본다. 하지만 게임의 법칙에 예외는 없어서 ‘귀하를 모실 수 없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인사담당자의 메일은 유감스럽게도 초기화를 의미한다. 레벨 1단계로 말이다(김난도 외, 2016, 242).

한해의 소비 동향을 분석하여 다음 해를 전망하는 소비경제전망지 『트렌드 코리아 2017』(김난도 외, 2016)은 대한민국의 20대 청년이 마주하는 현실을 일종의 오디션에 비유한다. 저자는 2016년 화제가 되었던 ‘결그룹 육성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이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참가자의 모습에서 현재 한국의 젊은 세대가 처한 현실을 보았다. 현재 대한민국의 20대는 ‘단군 이래 최고의 스펙을 갖췄지만 순위대로 피라미드의 자리가 주어지는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선택(pick-me)받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하는 고단한 세대(2016, p. 243)’인 것이다. 이에 김난도 외(2016)는 앞서 언급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출연진들이 열창했던 노래 제목인 ‘픽미업’의 가사를 따라, 2016년 대한민국의 20대와 30대 초반까지의 세대를 일컬어 ‘픽미세대’라고 칭하였다.

이들은[픽미세대는] 기성세대에 비해 초라한 미래를 살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세대다. 사회에 대한 불신도 그 어느 세대보다 깊다. 지옥보다 힘들다는 현 시대를 온몸으로 견디고 있는 이들에게 걱정과 조언보다 각자의 사정과 사연을 같은 눈높이에서 바라봐주는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김난도 외, 2016, 264).

엄혹했던 식민기와 한국전쟁을 온몸으로 겪어낸 세대의 눈으로 본다면 ‘지옥보다 견디기 힘들다는 현 시대’라는 표현은 다소 가볍다. 그러나 어느 세대마다 그들이 감당해야 할 짐이 있다고 볼 때 오늘을 살아가는 세대가 겪고 있는 고통을 표현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사료된다. 픽미세대가 경험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극단의 경쟁 속에서 각자 도생하는 공간이다. 모두에게 무엇이든 될 가능성이 열려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유가 주어졌다고 교육받은 대한민국의 청년에게 진정 자유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논의가 요청된다.

재독 철학자 한병철에게 오늘의 문제는 현대사회의 신자유주의 질서에서 통용되는 자유이다. 이는 소모적 혹은 소비적 자유로써, ‘우리는 자유 자체가 강제를 생성하는 특수한 역사적 시기를 살고 있다’(한병철, 2015, p. 10). 그에 따르면, 신자유주의 질서에서 발동하는 자유는 개인에게는 우울감과 탈진을 일으키고, 사회적으로는 민주주의 질서를 왜곡시키기도 한다. 민주적 질서를 훼손하는 과정에서 현대인은 ‘자신은 자유롭다’는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병철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 앞에서, 자유에 대한 질문을 새롭게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자유주의 체제가 초래하는 개개인의 전면적 고립 상태는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해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자유를 새롭게 정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새롭게 창안해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에 직면해 있다 (한병철, 2015, p. 12).

한병철이 제기하는 현대사회의 자유 개념 문제는 교육적 문제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교육에서 자유의 위상은 대단하다. ‘교육을 통하여 자유로운 정신을 갖는다’는 명제는 적어도 자유교양교육의 전통에서 일종의 공리(公理)이다. 그러나 오늘날 교육에서 자유는 어떻게 통용되고 있는가? 특히 무한경쟁을 통하여 선택을 희구하는 픽미세대는 자유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 자유를 둘러싼 교육 담론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제기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천원 오천석의 민주주의 교육론, 특히 자유 이념을 재음미하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천원은 해방 직후 대한민국의 교육제도를 정립한 행정가이자 교육학자로서 대한민국 교육의 기틀을 마련한 학자이다. 천원은 해방직후 민주주의 사회의 건설을 위하여 우리나라에 민주주의의 근본이념인 자유와 평등을 기반한 인간교육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그의 공적(功績)은 후대에 널리 알려져야 마땅하지만 그 자체로 그의 사상의 항구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천원의 교육이념이 이 땅에 새교육운동으로 구체화되어 소개된지 약 80여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천원 자신이 당시를 회고하며 『외로운 성주』를 집필한 시기는 그러부터 25년 뒤인 1974-5년이다. 집필 당시에는 세계 인구는 38억이었고(오천석, 1975a, p. 252), 국민소득 이천불(ibid. pp. 297-8)을 국가적 차원에서 산업발전을 목표로 삼았던 시기이다. 국가적인 수준의 부침을 극복해나가며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민소득은 약 2.7만불에 달한다. 세계 인구수는 75억명에 달한다.¹⁾ 그가 마주했던 당시의 시대상에 견주어 보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이질적이다. 교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는 당시 전인교육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이상적인 학급당 학생수는 2,30명인데 우리나라는 학급당 학생수 7,80명에 달한다고 지적한다 (ibid. p. 272). 오늘날 학급규모와 비교하여 이는 매우 이질적인 숫자이다. 천원은 교육이념에 시대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말한다 (오천석, 1975a, p. 116). 천원이 주장한 교육이념이 우리 시대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그의 사상은 그가 예언한 바대로 역사의 뒤안길로 자연스럽게 물러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서로 다른 시대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천원이 직면했던 당시의 교육상황은 지금의 우리와 일면 다르지 않은 양상이 있다. 천원은 민주교육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채 한국의 교육이 지나치게 주입식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전락하였다고 개탄한다. 그가 우려하였던 입시위주의 교육문화는 오늘도 현재진행형이다. 상기한 픽미세대가 가지는 열패감은 바로 이

1) <http://www.worldometers.info/kr/> (2017년 9월 10일 확인)

입시위주의 경쟁중심 교육문화와 무관하지 않다. 공부만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에 진학하여 안정된 직장에 취업할 수 있다, 그러니 다른 데 신경쓰지 말고 공부만 하라는 분위기 속에서 성장한 이 세대는 청년이 되어서도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 막연하다. 입시위주 교육에서 민주교육이라든지 천원이 주장했던 인간교육은 한낱 구호에 그치고 만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바로 ‘나’, ‘나를 뽑아달라’고 외치는 픽미세대에게 옆에 있는 이웃은 경쟁상대일 뿐 연대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자기 또래의 모두가 경쟁의 대상이 된 개인은 외롭고 우울하다.

일각에서는 오늘날의 교육현실이야말로 천원이 시도했던 민주주의 교육이 적극 실천되어야 하는 시기라고 말한다 (김성훈 2006; 조경원 2014). 천원 30주기(周忌)를 맞이하여, 필자는 이렇게 경쟁 일면의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을 위한 교육 시론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천원이 강조하였던 자유민주교육 이념을 논하고자 한다.

본고는 천원 오천석의 민주주의 교육에 대한 현대적 의미를 제고해 보고자 한다. 그의 후기 저서에 강조된 민족주의에 대한 논의 또한 요구되는 바이나 지면상 연구자의 한계로 인하여 본고에서는 천원의 민주주의 교육 이념 나타난 자유 개념을 분석하는 것으로 한정짓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오늘날의 시대적 담론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한병철(2015; 2017)의 논의를 바탕으로 1) 천원의 민주주의의 의미와 평가를 소략(疏略)하고 2) 그의 사상에 내재된 교육철학적 한계를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이를 바탕으로 3) 현대 픽미세대에게 통용되는 자유와의 관련성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4) 천원이 궁극적으로 지향하였던 도의적 민주주의 사상을 제고하여 오늘날 픽미세대에게 요구되는 자유 개념을 고찰하도록 한다.

II. 천원의 민주주의 의미와 평가

주지하다시피 천원의 사상은 민주주의로 일관된다. 박봉목은 천원을 해방 직후 한국의 민주주의 교육을 세위간 인물로 평가하며, 특히 1947년 출판된 『민주주의 교육의 건설』은 민주교육 이념의 건설을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다고 평하였다 (박봉목, 1993). 정세화(1992)는 천원의 민주주의 개념은 ‘원론적이고 원형적인 자유민주주의’라고 평가한다. 민주주의 개념에는 광범위한 의미층위가 존재하지만, 본고에서는 범위를 좁혀 천원이 제시하는 민주주의의 의미와 그에 대한 학계의 평가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

1. 천원의 민주주의 의미

천원은 1945년 8월 조국의 해방을 민주주의 승리에 의한 해방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것은 ‘사람의 가치를 무시하는 전제주의에 대한 사람의 가치를 지상가치로 하는 민주주의의 개선’인 것이다 (오천석, 1947). 여기에서 그가 이해한 민주주의의 첫 번째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민주주의 이념에 ‘사람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고전적 민주주의의 대전제인 인간의 존엄성이다.

국가를 구성한 인민 전체가 아무런 외적 구속도 받지 아니하는 자유로운 이성으로써 그 국가의 온갖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활동을 운전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사회이다(오천석, 1947, p. 15).

나아가 천원은 민주주의의 대전제인 인간의 존엄성의 두 근거로서 자유와 평등 개념을 소개한다. 민주주의 사회란 인민, 즉 국민 모두의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강조한다. 나아가 ‘아무런 외적 구속도 받지 아니하는’ 국민을 전제하여 민주주의의 다른 근본이념인 자유의 원리를 제시한다. 즉 천원이 간략히 소개하는 민주주의 국가는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자유와 평등이 전제된 사회이다. 특히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서 이성을 가진 개인을 국가의 우위에 둬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특히 강조한다(2009, p. 36). 이러한 규정은 서구의 시민혁명 이후 등장한 근대적 인간관과 상통하여 자유와 평등을 천부인권으로 타고난 인간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천원은 민주주의를 정치적 제도에 관한 이념으로만 보지 않는다. 그는 사람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민주주의 이념을 생활 및 삶의 방식으로 이해한다.

무릇 민주주의라는 것은 국가의 어떤 정치적 형태를 가르치는데만 쓰이는 말이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론에만 그치는 일종의 학설도 아니다. 이는 훨씬 광범위한 의의를 갖추고 있는 일종의 생활의 방식이요, 사회적 신앙이다. 그리하여 이 생활방식, 이 신앙이 정치생활에 적용되었을 때에 민주정치가 되는 것이요, 이것이 경제생활에 사용되었을 때에 민주경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것이 사회생활에 실천될 때에 민주사회가 형성되는 것이다(1947, p. 30).

천원은 18세기 혁명 이후로 정치적으로 제도화된 민주주의 이념이 20세기 들어 사회경제적 부문과 개인의 삶의 실천원리로서 확대된 점을 주목한다. 그는 미국 유학시절 자신이 체험했던 미국사회의 질서를 가리켜 민주주의 이념이 생활윤리로 확산된 사례를 확인한다. 천원에 따르면, 당시 미국인은 개인의 사리사욕만을 추구하는 이기주의가 아닌 개인주의 정신을 생활윤리로 따르고 있다. 천원이 미국사회에서 경험한 민주주의 정신이란 자기생활을 개척하는 정신, 진취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추구하는 정신을 지닌 개인이 구성하는 사회인 것이다.

천원은 민주주의 국가 건설에는 그에 부합하는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이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민주주의 국가라면 응당 민주주의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동시에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민주사회 건설의 선행조건이라는 점에서 교육의 역할을 특히 강조한 것이다(1975a, 168). 특히 ‘민주주의교육의 건설’은 천원이 제시한 민주주의는 특히

생활실천 차원 즉 정신의 문제이며 이를 위한 교육이 절실하다고 밝힌다.

민주주의 교육의 목표로서 천원은 첫째, 일제의 전체주의적 잔재와 전제주의적 유산을 청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산된 자리에는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정신과 이념을 심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975a, p. 168). 민주주의 교육의 일차적 목적은 인간의 존엄성과 민주주의의 근본이념인 자유와 평등에 관한 관념을 개인의 정신에 심어주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민주주의 교육은 단순한 이념교육이 아닌 전인격의 교육을 목표로 한다. 즉 개인의 개인적, 사회적, 경제적 생활에 대한 교육으로서 천원은 이를 가리켜 개인의 생활철학에 투영된 교육이라고 보았다 (1947, pp. 46-47). 셋째, 민주주의 교육은 교육내용 뿐 아니라 교육행정 및 방법에서 민주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하여 교육 민주화를 주장하게 된다.

해방직후 반공주의나 민족주의 등에 대하여 소극적이었던 천원은 그의 후기 저작에 이르러 민족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민주주의를 대한민국의 실정에 맞게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민족주의와 민주주의가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는 상보적인 관계에 있다고 강조한다. 이에 따라 천원은 민족의 개념을 정신사적 물질적 공동체로 규정하며 민족성의 전승 및 창조 방향을 제안한다 (오천석, 2013) 그가 제시한 민족성의 개념 또한 민주주의적 기본 개념인 자유주의를 전제하며, 세계시민의식으로서의 확산을 역설한다(오천석, 2016).

2. 천원의 민주주의 이념에 대한 학계의 평가

천원의 민주주의 교육은 이후 새교육운동 및 각종 교육 민주화 정책으로 구체화 되었으나, 이승만 정부 들어 반공이데올로기 교육이 확산되면서 천원의 민주주의 교육은 쇠퇴하게 된다. 천원의 교육이념은 교육정책면 뿐 아니라 학술적 면에서도 다양한 비판에 직면한다. 반공이데올로기 민족주의에 대한 이념이 부족하고 한국의 전통과 역사계승에 소극적이라는 점에서 비판은, 80년대 들어 비판의 골자는 미국식 민주주의에 대한 맹목적인 수용이라는 비판으로 이어지면서 문화적 제국주의 시각이 제시되었다(이광호, 1985; 한준상, 1987; 김인회, 1993). 한편 교육방법론적 측면에서는 듀이의 교육이론이 진보주의로 환원되어 아동 중심주의적 일면만이 자유와 해방인 것으로 그 의미가 축소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김태길, 1979; 박균섭, 2004). 마지막으로 후기교육사상인 민족적 민주주의교육은 당시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유성상, 2016).

종합하여 볼 때 천원의 민주주의 교육이념은 한국 교육철학사에서 최초로 학문적 정초를 세운 자 (정세화 1992)로 평가받으며, '새교육운동의 이론 제공자'로서 한국교육사에 족적을 남겼다. 이처럼 교육사 측면에서 천원의 교육개혁활동과 교육이념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었으나 (정세화, 1992; 이근엽, 1992; 박봉목, 1993; 김선양, 1996; 이항재, 2001; 정태수, 1995; 정원식, 2008 등) 천원의 학문적 위상은 당신이 세운 교육제도적 업적에 비하여 인정받지 못한 형편이다(유성상, 2016). 천원의 교육사상은 그의 민주주의 교육사상은 특히 천원의 사상이 한국적 맥락에 뿌리 내리지 못한 요인에 대하여 신차균(1992)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천원의 민주주의 교육사상이 수용되고 지지되기보다 배척되고 비난을 받는 시기가 더 길었던’ 것이 사실이라면, 안정되지 못하고 비민주적이었던 우리의 현대사에만 그 원인을 돌릴 것이 아니라, 그 사상이 우리의 문화적 특수성에 조화될 수 있는 것이었는지, 그것을 도입하려는 천원의 노력이 성급한 것은 아니었는지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신차균, 1992, p. 68).

천원의 교육사상이 실패한 요인은 무엇일까? 한국의 문화적 특수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부재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도입하려 한 시도 자체가 문제인 것인가? 그것은 교육사적 연구과제로 남는다. 본고에서는 천원의 교육사상을 현대적 맥락에서 사상 내적인 문제를 자유 개념을 중심으로 검토하도록 한다.

Ⅲ. 천원의 자유 개념에 내재된 교육철학적 문제

천원의 교육이념 전반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이나, 본 절에서는 범위를 좁혀 그의 자유 개념에 주목하도록 한다. 이는 상기한 픽미세대의 경험과 관련되는 개념으로 자유를 둘러싼 교육철학적 문제를 서양철학사적 관점에서 파악하기 위함이다. 천원은 서양철학 내 인간성에 관한 논쟁을 간략히 소개하며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논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 소기의 성과로서 천원은 철학 사상 사람의 가치를 최고 우위에 두는 관점에서 인간의 자유를 강조한다. 그가 제시한 자유 개념을 살펴보자.

천원은 자유 개념을 두 가지 차원으로 소개하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적 전제로 자유란 외부로부터 아무런 구속이나 제재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1947, p. 38). 개인의 자유는 어디까지나 남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 한에서 가능하다 (오천석, 1975a, p. 214).

민주주의의 지주가 되는 2대정신은 자유와 평등의 사상인데, 이것은 사람은 누구나 다 같이 자기의 최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자유와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러기 위하여는 각 개인의 인격과 개성이 존중되어야 하고, 자아실현의 기회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국가의 임무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남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자의 자유와 권리를 즐길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데 있다(오천석, 1975a, p. 174).

조정원(2014)은 천원의 자유 개념은 ‘외부의 제약이나 간섭으로부터의 자유’를 칭하는 소극적 자유보다는 ‘개인 각자가 자기의 능력을 실현해 가는 능력 혹은 개별화된 자아를 이뤄 가는 힘’으로서, 지성의 자유를 의미하는 적극적 자유 개념을 강조한다고 분석하였다. 실제

로 천원은 소극적 자유의 근거로서 존 스튜어트 밀을, 적극적 자유의 근거로서 칸트를 참고한다.

철학사에 등장하는 자유 개념을 적극적, 소극적인 차원으로 구별한 것은 이사야 벌린(Isaiah Berlin)이다. 벌린에게 소극적 자유는 개인주의적 인간을 전제하여 조화로운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국가나 여타 공권력이 침범할 수 없는 사적인 공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 맥락에 해당하는 인물이 존 스튜어트 밀, 토마스 홉스, 제레미 벤담, 존 로크, 벤자민 콩스탕, 알렉시 드 토크빌 등이 있다(Berlin, 2002, p. 171). 반면에 적극적 자유는 이성적 인간 개념에 근거한 것으로 대륙철학라 불리는 스피노자에서 칸트, 헤겔에 이르기까지 이성적 인간상을 전제한다. 인간은 그의 자유의지에 따른 행동을 할 수 있는 한에서 자유롭다는 전제이다. 특히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자아는 비합리적이고 충동적인 자아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으며 교육을 통하여 성취해야 할 자아상은 합리적인 자아이다.

벌린의 규정에 따르면 천원이 칸트의 논의를 빌어 제시하는 자유는 적극적 자유이다.

민주사회인은 자기의사를 제약하려는 온갖 외래의 세력에 저항할만한 용기를 소유하여야 하고, 자기 자신의 이성과 판단에 의하여 자기의 행동을 결정할만한 명민을 가져야 한다. 이 스스로가 자기의; 행동을 옹호할 수 있는 자유 - 이것은 실로 민주주의의 피요 살이다(오천석, 1947, p. 38).

종합하여 볼 때 천원의 경우 벌린이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모두를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벌린은 적극적 자유가 독재의 정당화에 악용될 가능성을 경고한다. 이는 적극적 자유에 내재된 자아의 서열화로 인하여 가능한 부분이다. 합리적 자아를 비합리적 자아의 우위에 두는 경향은, 열등한 자아가 합리적 자아로 성장할 때까지 통제와 관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정당화할 수 있다. 벌린이 주장하는 이상적 자유는 궁극적으로 소극적 자유를 수호하는데 기여하도록 적극적 자유를 정부의 활동에 참여하는데 활용하는 것이다(Berlin, 2002, p. 211)

교육철학에서도 두 유형의 자유가 공존한다. 벌린은 적극적 자유가 교육에서 개인(아동)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을 정당화하는데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독일국가의 발전에 교육을 수단으로 삼은 피히테는 미래의 시민인 아동이 자율적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필요에 따라서 교육에 따르는 제약이 가해지더라도 아직 이성이 발달하지 못한 아동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성을 갖춘 미래에는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전제한다. 적극적 자유를 얻기 위하여 일정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이다. 벌린은 이러한 교육적 논리가 전체 사회 논리로 확장되면 독재를 묵인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물론 소극적 자유의 입장에서 이러한 유의 제약은 정당화 될 수 없다. 국가의 일부 제약은 개인의 자유를 침범하는 것이다. 교육에서 소극적 자유를 견지하는 입장은 학교 선택권이나 개인의 적성에 맞는 교육을 주장하거나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곤 한다. 이처럼 자유와 관련된 철학 논쟁 뿐 아니라 교육철학 내에서도

논쟁은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자유의 의미가 분화되고 있다. 그것은 교육을 둘러싼 근대적 시간성과 정량화 경향 등으로 요약된다. 달리 표현하면, 자유는 1)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여되어야 할 ‘양’ 2) 미래의 이상적인 ‘상태’로서 환원된다.

첫째, 자유의 정량화 현상. 일례로 영국에서는 60-80년대로 이어지는 교육논쟁 사안 중 하나가 바로 전통주의 교육론과 진보주의 교육론이었다(Yun, 2016; Standish, 2000). 이들은 지식중심교육관 대 경험중심교육관, 교사중심 교육 대 아동중심 교육 등에서 양극단의 위치에 서 있다. 이들의 관점을 분별하는 지점은 자유 개념 자체가 아니다. 교육을 통하여 자유로운 이성을 추구한다는 교육의 목적을 공유하고 있다. 다만 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하여 ‘어느 수준’의 자유가 주어져야 하는가에 대하여 의견이 대립한다. 이때 자유는 ‘자유로운 시간’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허용 범위의 문제로 축소한다(Dearden, 1975; Quinn, 1984). 그런데 자유는 정량화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 나아가 자유를 정량하는 주체는 그 자유를 누리는 학습자가 아닌 교사로 자유를 누리는 자와 자유를 허용하는 자의 경계가 그어져 있다.

이는 천원의 자유개념이 교육이념으로 환원되면서 유사하게 발생하였다. 오성철(2017)은 천원의 민주교육론이 교육방법의 차원으로 전환되면서 당시 전체주의적 교육론에 대한 대체제로서 진보적 요소가 희석된 점이 있다고 진단한다. 특히 천원의 교육이념이 사상과 학문의 자유나 개인의 개성을 보장하는 이념적 담론보다는 그저 당시 성행한 ‘지식중심교육’ ‘교과서 중심 교육’ 등에 대한 방법론적 대안으로서 진보주의적 교육방법과 연계되면서 그의 교육이념이 ‘교수법적 담론’으로 위축되었다 (오성철, 2017, p. 89). 오성철(2017)은 천원의 민주교육론이 교육방법 담론으로 전환되면서 그의 이념 자체에 대한 학문적 논의가 충분히 숙성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천원의 자유 개념이 기대고 있는 교육담론 자체의 한계이기도 하다.

현대 세계교육사의 차원에서도 존 듀이의 진보주의 교육사상이 지식 중심의 교육과정 전수를 근간으로 하는 학교교육의 기본적 성격 자체를 뒤바꿀 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하나의 실험으로 그치게 되었다는 사정을 고려한다면, 오천석이 민주교육의 실제 방안으로 제시한 ‘생활, 경험, 흥미’ 중심 교육론이 실효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한국교육의 변화를 추동할 만한 사상적 힘을 갖기는 어려웠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오성철, 2017, p. 89).

오성철(2017)의 평가는 진보주의 교육론이 달성한 소기의 성과를 과소평가한 면이 없지 않지만, 20세기의 세계교육사는 실제로 진보주의 교육론이 지식중심의 교육과정을 위시한 전통주의 교육론과 대결 내지 긴장구도 속에서 확산과 위축을 반복한 역사이기도 하다. 요컨대 진보주의 교육론에서 자유 개념은 그 대척점에 있는 전통주의와의 논쟁 속에서 정량화되는 변이를 일으키면서 자유의 의미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전개되지 못하였다. 자유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 즉 교육을 통하여 자유를 얻어야 한다는 교육론에서 자유 그 자체에 대한 의미는 정치철학적 수준에 그치고 막상 교육론에서는 교수법으로 변형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둘째, 미래의 이상적 상태. 교육담론에서 자유는 단순히 정량적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상적 상태를 지칭하기도 한다. 자유는 교육을 통하여 ‘합리적 이성을 가진 개인’이 누리게 되는 상태이다. 천원도 자유를 반성적 사고가 가능한 능력이자 이성 최후의 법정이라고 말한다 (1975b, p. 61). 벌린은 정치철학의 관점에서 적극적 자유에 내재된 독재의 정당화 가능성을 경고하였다. 그것은 자아의 서열화 과정에서 타인에 대한 통제 가능성 내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독재의 가능성은 시간관에서도 그대로 되풀이된다. 지성의 자유라든가 합리적 이성을 이상적 미래로 전제할 때, 현재는 ‘부족상태’이다. 서열로 따지면 미래가 현재의 우위에 있다. 미래와 현재의 시간을 분절하는 기준은 ‘이상’과 ‘이상부족’ 상태이다. 이 과정에서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상정하며 현재를 착취하는데 정당성을 제공한다. 미래의 좀 더 나은 상태를 위하여 오늘을 잊고 살라는 논의로 정당화 될 소지가 있다. 개인이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오늘을 경주하는 것 자체는 이의를 제기할 것이 없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자유의 의미 자체에 대한 성찰이 부족한 상태에서, 우리는 이 자유를 미래의 상태, 예를 들면 ‘대학만 진학하면’ ‘취업만 되면’ ‘이번 중간고사만 끝나면’ 등의 담론으로 넘겨 버린다. 우리에게 자유학교로 알려진 영국의 서머힐 학교는 아동에게 자유롭게 활동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교육논쟁에서 이 관점은 자유의 정량화 문제로 치환되면서 서머힐이 근본적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자유를 통한 교육경험을 포착하지 못한다. 때로 서머힐 학교의 교육성과도 졸업생의 대학진학률 등으로 환원되어버리기도 한다. 자유는 교육담론에서 이념상의 당위성은 그대로 유지한 채 다양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관념적 지표로 환원되었다.

‘인간교육’이나 ‘전인교육’이라는 말은 권장적인 성격을 갖는 개념이어서, 마치 ‘민주주의’나 ‘자유’라는 말이 그렇듯이 아무도 반대할 수가 없는 개념입니다 (신차균 1992, p. 69).

교육을 통하여 자유로운 개인으로 성장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건설한다는 목표는 그 자체 이의를 제기할 것이 없다. 다만 그 자유는 어떤 성격을 지니는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 그것은 비단 천원의 교육이념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장-뤽 낭시(Jean-Luc Nancy, 1993)는 서양철학사에 등장한 보편적 문제라고 말한다. 오늘날 자유 개념은 의미가 공허한 개념으로 소진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자유는 텅 빈 의미, 말 뿐만 남은 것이다. 이처럼 자유에 관한 철학적 긴장 속에서 천원의 적극적 소극적 자유 개념은 이러한 서구의 형이상학적 논쟁과 교육론에 도입되는 과정에서 기이한 변형을 일으키는 현상을 담지하고 있다. 요컨대 천원의 자유 이념에 내재된 근본적인 긴장은 그가 기대고 있는 서구의 형이상학적 관념에 내재된 긴장에서 비롯된 것이다.

IV. 픽미세대와 자유

그렇다면 서구의 형이상학적 긴장을 담지한 자유 개념은 오늘날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가? 텅빈 기표로서 자유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른 의미로 소진되고 있다. 지그문트 바우만(Zygmunt Bauman)은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는 소비의 자유라고 말한다(2002; Bauman & Mazzeo, 2016).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를 향유하는 방식은 개인의 욕망을 풀어내는데서 명확하다. 자본주의 질서에서 개인이 향유할 수 있는 자유는 소비로 실현된다. 이제 개인은 소비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표현한다.

소비사회는 욕망의 대상을 한정된 재화로 묶어 놓은 산업적인 자본주의 사회와 달리, 상징을 둘러싼 경쟁을 무한하게 가능하게 하는 사회이다. 근대적 개인이 사회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과제를 떠맡아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스스로 답할 자유를 운명으로 떠맡았다면, 소비사회의 개인은 자신의 자아를 표현할 기호를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이유선, 2007, p. 209).

소비활동은 물론 자본에 의존한다. 자본이 있는 개인은 소비활동을 통하여 개인의 욕망을 해소하며 ‘자유’를 향유하지만, 자본이 없는 자는 자유롭지 못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의 유무에 따른 욕망 해소 가능성은 마치 자연질서와 같다. ‘돈 없는 자가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부자유는 자연이 인간에게 부과한 부자유보다도 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다’ (김태환, 2015, p. 134).

앞서 필자는 서양 철학사에서 자유 개념은 이제 텅빈 기표로 남았다고 논하였다. 한병철(2015)은 텅빈 기표로 남은 자유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착취되고 있다고 말한다. 자본주의 사회는 자유를 억압하지 않는다. 자본의 이익에 부합하는 한에서 개인의 자유를 오히려 권장한다. 신자유주의의 핵심은 바로 이 자유이다.

신자유주의는 자신을 자유로 내세우지만, 이 자유는 광고다. 세계적인 것은 오늘날 보편적 가치들까지 잠식하고 있다. 그 결과 자유 자체가 착취당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실현한다는 망상에 빠져 자발적으로 스스로를 착취한다. 자유의 억압이 아니라 자유의 착취가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한다(한병철, 2017, p. 29).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이 우리에게 자유경쟁을 종용하고 있다고 말한다. 경쟁을 통하여 얻어낸 성과에 대해 개인은 이를 자아실현으로 받아들인다. 그런데 한병철은 이 과정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자본’ (2015, p. 13)이라고 말한다.

개인도 ‘자기실현’으로 환원된 자본의 성과를 얻기 위해 자신을 자발적으로 닦달한다. 마르크스가 주장한 자본주의 사회 내 지배계급의 피지배계급에 대한 착취는 가시적으로 분명

하여 피아식별이 가능했다면, 오늘날 신자유주의적 질서에서 착취의 대상은 자기 자신이다. 자유경쟁 속에서 개인은 자기 자신을 자발적으로 착취하며 그것이 자신의 선택이라고 말한다. 즉 개인은 자유경쟁의 시스템 속에서 ‘자아실현’이라는 미명하에 스스로를 닦달하면서 효율성을 극대화 한다. 이 과정에서 이익을 보는 것은 자본이다. 개인의 효율성, 생산성은 자본의 증대로 이어진다. 자본은 개인의 ‘자유’ 환상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배를 불리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한병철(2015)은 자본이 자유를 착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자본이 바로 ‘텅 빈 자유의 기표’를 착취하고 있는 것이다.

성과를 내지 못한 개인에게 실패의 원인은 시스템이나 사회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다. 원망의 대상은 개인 내부에 있다. 신자유주의 질서에서 개인은 ‘혁명가가 아니라 우울증 환자’ 될 뿐, 개인은 점차 고립되어 ‘공동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정치적 우리’가 되지 못한다(한병철 2015, pp. 16-7). 관련하여 천원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적 가치를 우위에 뒀으로써 개인 간 벽이 생겨 공동체성이 희박해지면서 ‘나만 잘 살면 된다’는 태도가 등장하고 있다고 경고한다(1975a, p. 188). 자유경쟁의 공간에서 연대는 불가능하다.

오늘날 디지털 네트워크는 개인의 자유를 기술적 차원으로 환원시킨다. 디지털 네트워크는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는 무제한의 자유를 허하는 매체로서 등장하였다.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현대인은 ‘나’를 드러낸다. 열심히 셀카를 찍어서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좋아요’를 구걸한다. 페이스북의 ‘좋아요’는 ‘기호나 관심의 같음’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칠 뿐 거기에서 더 이상의 의미있는 경험으로 분화되지 못한다. 디지털 네트워크에서 현대인은 피상적 관계 속에서 인정받기를 원하면서 동시에 나오는 다른 타인과의 만남의 기회는 차단된다.

디지털 판옵티콘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노출하여 판옵티콘 건설에 적극 동참한다. 디지털 사회는 고도로 자유로운 사회이다. 자발적인 자기 노출을 통해서 유지될 수 있는 사회인데 아이러니 하게도 투명성이 보장된 사회는 오히려 개인의 통제를 심화시킨다.

마지막으로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시민을 소비자로 만든다. 시민의 자유는 소비자의 수동성으로 대체되며 소비자로서 유권자는 선거로서 정치에 수동적으로 반응한다. 정치인의 정책을 슈퍼마켓의 브로셔 보듯 뒤적이며 수동적으로 선택한다. 그리고 나는 정치에 참여했다고 안위한다. 정치인은 소비자 시민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납품”한다. 한병철은 오늘날 정치인이 ‘유권자 고객에게 만족스러운 상품을 제공해야 하는 납품업자’(2015, p. 23)로 전락했다고 말한다.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유권자는 이제 정치의 참여자이기 보다는 소비자가 구경꾼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요컨대 현대인에게 텅 빈 자유개념은 자본에 의해 제멋대로 휘둘리고 있다. 재독철학자 한병철은 현대사회 신자유주의 질서에서 소비되는 자유로 인해 현대인은 공허와 권태를 느끼며 끊임없이 ‘나와 같은 것’에 대한 탐닉을 추구하게 된다고 경고한다. 그것은 ‘같은 것’의 과잉이고 ‘같지 않은 것’에 대한 철저한 배제와 추방의 정치를 낳는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 시대 민주주의는 위기이다. 천원 또한 자본주의의 심화에 따른 민주주의의 위기를 예감하고 있다.

현대사회는 인간을 질식시키고 있고 인간으로부터 인간성을 약탈하고 있다. 지식의 폭발적 발달로 강해져야 할 인간은 약해져 가고만 있다. 인간은 언제 자신이 만든 핵무기의 희생자가 될지 몰라 떨고 있다. 지식의 혜택으로 눈뜬 민족주의 간의 치열한 경쟁은 언제 또 열전으로 폭발될는지 모른다. 교육의 한 부산물인 개인주의는 인간을 핵화함으로써 급격히 이기주의로 몰아가고 있다. 점차로 강대하여 가는 정치의 권력 밑에서 인간이 더욱 무력해 가고 있는가 하면, 일층 더 견고해지기만 하는 체제에 눌러 비인간화되어 가고 있으며, 비대화하여 가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조직은 에리히 프롬이 말한대로 사람은 생명을 상실한 자동인간 (automation)화하고 있다(오천석, 1975a, p. 282).

본절에서 논의된 현대사회에 통용되는 자유 개념과 그와 관련된 사회적 현상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김난도 외 (2016)는 대한민국의 20대를 픽미세대라고 칭하였다. (다른 사람 말고)바로 ‘나’를 뽑아달라고 외치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선택’ 받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이 세대는 비교적 경제가 성장세를 보이던 시기에 태어나 부모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성장한 세대이면서 동시에 성인이 된 시점에는 경기불황을 맞아 불안한 취업시장의 현실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세대이기도 하다. 학교교육 12년간의 학력경쟁을 뚫고 대학에 진학하면 한시름 돌리는가 했더니 이제 취업의 경쟁 속에 휘몰린다. 스펙을 쌓아야 하고 외모도 가꿔야 한다. 무한한 경쟁 속에서 자신을 닦달하며, 경쟁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패에 대해 자조와 체념을 반복하며 무기력감을 학습하게 된다. 암흑같은 미래 앞에서 적자생존과 각자도생이란 표현을 조롱하면서도 절감하는 세대이기도 하다.

한때 인터넷 상에는 소위 ‘20대 개새끼론’이란 세대갈등을 조장하는 용어가 나돌았다. 요지는 80년대 이후 출생한 세대가 대체로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386세대의 비판이다. 1차적 의미로는 대한민국의 20대 청년의 선거 참여율이 저조한데 대한 비판이다. 이에 대하여 젊은 세대는 오히려 반문한다. 다른데 관심 갖지 말고 공부만 하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갑자기 공부 외 다른 데 관심이 생기겠느냐고 말이다. 자유를 소비문화로 받아들인 이들에게 정치적 권리로서 행사해야 할 자유가 부담스럽고 생경한 것이다.

픽미세대의 또 다른 의미는 디지털 세대이다. 이들은 유년기부터 디지털 기기의 수혜를 받아 일찌감치 온라인 세계에 로그인 한 세대,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이다. 김난도 외 (2016)는 이들이 사회관계망인 SNS를 통해 자신의 일상을 끊임없이 전시하여 타인에게 인정받기 원하면서 동시에 인간관계에 환멸을 느껴 인간관계에 권태기를 느끼는 세대로 설명한다.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사회경제적으로 풍족해지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타인과 만나게 되는 시대가 되었는데, 현대인은 오히려 외롭고 타인과의 관계는 계속해서 피상적인 수준이 남아있다.

요컨대 현대사회의 자유 개념은 자본주의 질서에 전용되었다. 이는 서양의 철학사상 자유

개념이 기표만 남긴채 의미가 제대로 논구되지 못한데 일차적 원인이 있다고 사료된다. 이는 자유라는 용어 자체의 폐기를 요청하는가? 천원은 현대문명의 문제를 자본주의의 문제와 관련하여 지적하며 그 대안으로서 도의적 민주주의를 제시한다. 이때 자유의 개념은 앞서 언급한 소극적, 적극적 자유 개념과 다소 다른 성격을 나타낸다.

V. 도의적 민주주의와 관계적 자유

‘현대인의 자유를 위한 욕구는 장차 현대사회를 어디로 몰고갈 것인가?’ (1975a, p. 189) 천원은 민주주의에 대하여 무수한 결함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가 ‘인류가 지금에 이르기까지 발견한 인간관계를 올하는 최고의 원리 (ibid., p. 170)’라고 주장한다. 오늘날 민주주의가 불신을 받는 이유 중 하나는 자유와 방종의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1975a, p. 215). 앞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현대사회에서 자유는 자본에 의해 착취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독특한 소비문화 질서에서 자유 라는 용어는 오히려 과잉 소비된다.

천원은 자본주의 사회 물질문명의 풍요에 비하여 정신문명의 진보가 이어지지 못한 점에 우려를 나타낸다. 방종이 되어버리는 자유의 오남용으로 인하여 기존의 민주주의 질서는 중우정치, 독재, 가치 소멸 등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현대인에게 이 자유는 이제 개인적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각양각색의 이상이 되었다. 본래 자유를 지칭했던 미래의 이상은 더 이상 특정한 공동의 이념이 아니다. 그것은 개인이 소비사회에서 자본의 결핍으로 경험하는 부자유를 해소하기 위한 욕망이다. 소비의 제약은 현대인의 현재는 ‘부자유’의 상태이다. 소비사회에서 이 ‘부자유’는 소비를 통하여 충족된다.

물질만연주의에 따른 현대사회의 다양한 현상을 문명의 위기로 진단한 천원은 앞으로의 사회는 도의적 민주주의로 건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천원이 제시한 생활윤리로서 민주주의는 도의적 의미를 지닌다. 즉 민주주의를 통하여 성취하고자 하는 것은 도의적 사회질서를 수립하는 것, 인간 본연의 지위를 되찾는 작업이다.

앞서 천원의 사상 내적 긴장은 서양의 철학 자체의 문제라고 고찰한 바 있다. 천원은 근대적 인간상에 내재된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신뢰에 우려를 나타낸다(1975a, p. 195). 그는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한계,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자각을 바탕으로 사람 간의 관계를 중시한다. 이에 현대 사회의 과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도덕으로 연결시키는 일”(1975a, p. 220)이다. 천원은 인간사의 비극은 도의적 사회질서의 결여로 인함 인간관계의 도덕적 요소가 결핍되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천원에게 도의적 민주주의는 인간착취나 종속관계를 벗어나 인류 해방을 지향하는 도덕 운동이라는 것이다.

천원은 도의적 민주주의를 ‘남과 다름’의 사실에서 출발한다(1975a, p. 251). 단순히 가치적 차이에 따른 ‘다름’이 아니라 각 사람마다의 내면적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다. 천원은 독재주의란 자기만을 고집하고 남의 존재를 부인하는데서 출발한다고 말한다. 현대의 자유경

쟁은 ‘남’ 즉 타자의 존재를 보지 못하게 한다. 경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나와 남이 비교가 가능한 상태가 공유되어야 한다. 경쟁은 동일한 부분에서부터 발생하는 차이를 서열화하는데서 가능하다. 자유경쟁의 전제는 ‘같음’이다. 현대의 개인은 무한경쟁 속에서 ‘같음’의 형식으로 타자를 경쟁의 대상으로 인식할 뿐 진정한 ‘다름’의 타자를 보지 못한다.

한병철(2015)에게 자유는 관계의 자유로서 자아의 실현에 타자를 요청한다.

자유롭다는 것은 본래 친구들 곁에 있음을 의미한다. 인도게르만어에서 자유 Freiheit와 친구Freund는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이다. 자유는 근본적으로 관계의 어휘다. 사람들은 좋은 관계 속에서, 타인과의 행복한 공존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느끼는 것이다. ... 흥미롭게도 마르크스 역시 자유를 타자와의 좋은 관계라는 면에서 정의한다. “모든 개인은 다른 사람들과의 공동체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소질을 모든 방향으로 온전히 발전시킬 수 있는 수단을 획득한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비로소 개인의 자유가 가능해진다.” 따라서 자유롭다는 것은 타인과 함께 자아를 실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는 성공적인 공동체와 동일어이다 (2015, p. 12-13).

한병철이 제시하는 관계의 자유는 단순히 ‘무엇을 할 수 있음’의 능력을 칭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함께 있음’의 경험인 것이다. 이는 천원이 제시하는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활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와 상통한다. 듀이는 민주주의가 단순한 정치제도가 아닌 공동의 생활양식이라고 말한다. 민주주의는 공동체의 경험을 전달하고 공유하는 방식인 것이다 (듀이, 2016, p. 155). 이는 민주주의의 자유 개념에 이미 타인과의 관계의 어휘가 내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조경원 (2014)는 천원의 자유 개념에 적극적 자유의 의미를 견지한다고 말한다. 이는 듀이가 강조하는 지성의 자유로서 ‘숙고를 거쳐 선택된 목적을 실현하는 능력의 자유’ (조경원 2014)를 의미한다. 천원도 자유를 반성적 사고가 가능한 능력이자 이성 최후의 법정이라고 주장한다(1975b, p. 61). 과연 무엇을 숙고할 것인가? 숙고의 출발점은 타자의 발견이 되어야 할 것이다.

도의적 민주주의에서 지성을 강조하는 것은 실용적 접근이다. 천원이 듀이의 실용주의 정신을 공유하는 한, 지성의 자유는 그것 자체에 가치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유용하여 활용하여 개인의 세계를 확장하는데 유용한 한에서 가치 있는 것이다. 지성의 자유가 유용한 이유는 이를 활용하여 타인의 존재를 비로소 보게 되기 때문이다. 현명한 선택은 비판적 지성에서 비롯된다고 역설한다(1975c, p. 241). 그것은 도덕과 관련된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직접 경험하는 것이다. 때문에 천원은 지식일변의 교육을 지양하고, 책임과 의무를 가진 자유를 바탕으로 민주적 정의로서 타인을 존중하는 인격교육을 강조한 것이다 (박봉목, 1993, p. 119; 오천석, 1975c, p. 310). 천원이 제시하는 도의적 민주주의의 근간으로서 자유는 타자를 만나는 관계의 자유이다.

천원은 21세기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현대사회 인간의 모습이 ‘비참하다’ 혹은 ‘절망적이다’(1975a, p. 283)이라고 말한다. 그 원인은 현대 자유 개념이 왜곡되고 남용되는 데서 찾아져야 한다. 천원이 제시하듯 이에 대하여 교육은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것은 ‘인간의 구출, 인간성의 회복’으로서 이후 우리 교육의 지표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1975a, p. 283). 그런 지표는 무엇일까?

천원은 그것이 도의교육방법으로서의 자율적 민주인격을 함양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병철(2017)은 칸트의 관념을 들어 관계의 자유를 환대로 경험한다고 역설한다.

이성에 의해 세워진 영구 평화에 대한 칸트의 관념은 무조건적인 “환대”에 대한 요구에서 정점에 도달한다. 이에 따르면 모든 이방인은 다른 나라에서 체류할 권리를 지닌다. 그는 “자신의 자리에서 평화로운 태도를 유지하는 한” 적대적으로 취급받지 않고 머무를 수 있다. 칸트에 따르면 어느 누구도 “지구상의 어떤 장소에 있을 권리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고 있지 않다.” 환대는 유토피아적 표상이 아니라 이성이 강요하는 관념이다. ... 환대는 자기 자신에 도달한 보편적 이성의 가장 높은 표현이다. 이성은 동질화하는 힘을 행사하지 않는다. 이성은 친절함을 통해 타자를 그 타자성 안에서 인정하고 환영할 수 있게 된다. 친절함은 자유를 의미한다(2017, p. 31-32).

타자에 대한 인식, ‘다름’에 대한 인정과 수용에서부터 자유 경험이 출발하는 것이다. 나와 전적으로 ‘다름’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사유가 시작한다. 한병철(2015)는 사유를 통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환대로 경험하는 관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개선을 인도한다.

아름다움의 정치는 환대의 정치다. 이방인에 대한 적대성은 증오이며 추하다. 이 적대성은 보편적 이성의 결여를, 사회가 여전히 화해되지 않은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다. 한 사회의 문명화 정도를 보여주는 척도는 바로 이 사회의 환대, 나아가 친절함이다. 화해는 친절함을 뜻한다 (2017, p. 33).

이에 천원이 제시하는 인간관계의 율로서의 민주주의는 전적으로 타자와 마주하는 세계를 전제한다. 타자를 보지 못하게 하는 정신을 양산해 내는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의 자유 관념에서 벗어난 관계의 자유로서 천원의 민주주의가 해석된다. 그것은 관계의 자유에서 형성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우리에게 대한 이해이다.

많은 경우에 있어 사람의 불행은 사람의 세계를 하나로 생각하는데서 온다. 누구나 더 높은 지위에 올라 있고 풍성한 부를 누리고 살며, 상당한 권세를 부리고 사는 세계를 동경한다. 그러나, 세계는 얼마든지 있다. 각 개인이 창조하여 사는 고장이 모두 세계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훌륭한 세계가 될 수 있다. 우

리가 동경하는 세계가 의외에도 불행한 세계인지도 모른다. 최선아로 이룩된 세계가 가장 행복한 세계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부과되는 임무는 최선아를 구축하는 일이다 (오천석, 1975a, p. 300).

‘나’의 세계가 아닌 타자를 환대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계가 있다. 그것이 관계적 자유가 인도하는 세계이다.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강조하는 것이 천원의 민주교육이라면 이때 개인의 자유는 단순히 자신이 원하는 것을 (타인의 피해가 가지 않는 한에서) 할 수 있는 소극적 상태만을 칭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타인과 나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게 하는 주요한 기제로서 타자의 다름을 확인할 수 있는 실존적 공간인 것이다. 때문에 독일의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는 자유를 단편적인 개인의 자유의지가 아닌 “열린 공간”으로서 논한다(Heidegger, 1977, p. 25). 하이데거의 철학에 근거한 한병철 (2017)은 바로 이 공간을 타자와의 만남의 공간으로 제시한다. 관계의 자유 속에서 만나는 타자와의 소통 속에서 민주주의적 연대가 가능할 것이다. 우리 시대 자유 개념에 대한 제고가 절실히 요청된다.

단언컨대 교육이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원자는 아니다. 다만 듀이가 명시한 바 있듯 각 시대의 교육의 목적이나 이념이 내포하는 것은 당대의 결함이나 문제에 대한 반성이다. 교육적 수준에서 요구되는 자유 경험이 요청된다. 학교의 어원은 여가이다. 이런저런 목적과 이해관계에 얽힌 사회를 닦았지만 그럼에도 직접적 이해관계에서 분리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학교는 타인의 다름을 마주하는 관계의 자유를 경험하는 최적의 공간이 될 것이다. 우리의 과제는 교육의 본래적인 기능인 민주주의 사회를 지향하며 타자를 이해하여 관계를 회복하는데 있다.

VI. 결 언

본고는 오늘날 픽미세대에게 요청되는 교육문제를 중심으로 천원 오천석의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현대적인 관점에서 해석하여 보았다. 천원의 민주주의는 생활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로 정치 사회경제 및 개인의 삶 전체에 관한 삶의 관점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그가 기대고 있는 서양 철학 내 자유 개념의 독특한 성격으로 인하여 그의 사상에 다소 취약성이 발견되었다. 그것은 자유 개념 자체의 공허함이자 정량화의 가능성이었다. 현대사회에서 자유 개념은 자본주의의 전략을 받아들여 착취되고 있다. 그 사이 개인은 개인의 자아실현이라는 미명하에 자신의 자유를 자본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착취하고 있다. 본고는 그것이 자유 개념 자체의 논의가 부족한 데 기인한다고 판단한다.

본고는 사람과 사람사이를 잇는 울로서 도의적 민주주의를 강조한 천원의 근본적인 사상은 소극적/적극적 자유의 성격에서 나아가 관계의 자유로 파악하였다. 특히 한병철(2017)의

논의에 기대어 관계의 자유는 환대로서 경험됨을 제시하였다. 이는 천원이 궁극적으로 지향했던 민주주의 사회 건설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관계의 자유를 경험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에도 벌어지고 있는 취업경쟁이나 입시경쟁을 해소하지 못한다. 다만 이 경쟁의 이면에 내재된 ‘자유’ 개념의 착취를 깨닫고 타자를 돌보면서 자신의 자아를 형성해 가는 경험이 교육에서부터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자신이 이해하는 자기 자신, 타인에 대한 이해를 경험하는 공간으로서 자유는 교육적 경험이다. 이것이야말로 공동경험의 확장이면서 동시에 천원이 강조한 민족적 공동체 정신 함양, 그리고 나아가 세계시민의식으로서의 확장이 될 것이다.

본고는 천원의 현대적 의미를 고찰하기 위하여, 어쩌면 화해하기 어려운 두 가지 다른 철학적 전통을 한데 모아 보았다. 그것은 미국의 실용주의 교육전통과 유럽의 후기구조주의 사상이다. 그것은 묘한 긴장을 불러일으킨다. 양자의 사상적 차이는 철학적 엄밀성으로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본고는 이러한 사상을 한데 모아 천원의 사상내적 문제는, 서양 철학사의 한계에서 비롯하여 현대 서양철학으로 진행되는 전통철학에 대한 반성과 연결점이 되는 지점이 있음을 제시하여 보았다. 부디 이 긴장이 천원의 사상을 현대적 의미로 해석하는데 일조하기를 바라며 나아가 그가 희구하였던 사회적 진보의 도정에 미약하나마 일조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마친다.

참고문헌

- 김난도 외 (2016) 『트렌드 코리아 2017』, 미래의 창.
- 김선양 (1996) 「천원 오천석의 교육사상」, 『한국교육사학』 18권, pp. 275-289.
- 김인회 (1993) 『한국교육의 역사와 문제』, 문음사.
- 김태길 (1979) 『존 듀이의 사회철학』, 태양문화사.
- 김태환 (2015) 「자유와 그물을 넘어서 - 한병철의 『심리정치』에 부쳐」, 옮긴이 후기, 『심리정치』 (한병철, 2015), 문학과 지성사.
- 박균섭 (2004) 「일제 강점기의 듀이 교육론 이해 양상에 관한 고찰」, 『교육철학』 25집, pp.1-22.
- 박봉목 (1993) 「한국교육에 투영된 듀이 재평가와 천원 오천석의 자리」, 『교육철학』 11집, pp. 109-119.
- 신차균 (1992) 「천원 오천석의 교육사상 연구」에 대하여, 『교육철학』 10권 (1992), pp.67-69.
- 오성철 (2017) 「오천석과 난바라 시계루의 민주교육론 비교」, 『한국초등교육』 28권1호, pp. 77-94.
- 오천석 (1947/2009) 『민주주의 교육의 건설』, 정민사.
- 오천석 (1975a/2009) 『외로운 성주』, 교육과학사.
- 오천석 (1975b/2001) 『민주교육의 본질』, 교육과학사.
- 오천석 (1975c) 『교육철학신강』, 광명출판사.
- 오천석 (2016) 『발전한국의 교육이념탐구』, 교육과학사.
- 오천석 (2013) 『민족중흥과 교육』, 교육과학사.
- 유성상, 유은지, 박인영 (2016) 「국가발전에 관한 오천석과 정범모의 교육발전 논의 비교: 한국의 교육발전론 비평」, 『아시아교육연구』 17권2호, pp.1-32.
- 이광호 (1985) 「미군정의 교육정책」, 『해방전후사의 인식(2)』, 한길사.
- 이근엽 (1992) 「존 듀이의 교육철학과 오천석의 교육사상」, 『교육철학』 10집, pp. 263-275.
- 이유선 (2007) 「소비문화와 자율성의 문제」, 『사회와 철학』 14호, pp.201-228.
- 이항재 (2001) 「오천석의 민족교육사상 연구」, 『한국교육사학』 23권2호, pp.263-288
- 정세화 (1992) 「천원 오천석의 교육사상 연구」, 『교육철학』 10권, pp.49-66.
- 정태수 (1995) 『광복3년 한국교육법제사』, 예지각.
- 조경원 (2014) 「민주주의와 교육에 대한 오천석 사상 탐구」, 오천석 박사 기념 교육포럼, 『민주교육』 24호, pp.13-36.
- 한병철 (2017) 『타자의 추방』, 이재영 역, 문학과 지성사.
- 한병철 (2015) 『심리정치』, 김태환 역, 문학과 지성사.
- 한준상 (1987) 「미국의 문화침투와 한국교육」, 『해방전후사의 인식 (3)』, 한길사.

- Bauman, Z. (2002) 『자유』, 문성원 역, 이후.
- Bauman, Z. & Mazzeo, R. (2012) *On Education: Conversations with Riccardo Mazzeo* (London: Wiley).
- Berlin, I. (2002) Two Concepts of Liberty, in: Hardy, H. (Ed.) *Isiah Berlin: Liber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Dearden, R. (1975) Autonomy as an Educational Ideal I, In: Brown, S.C. (Eds) *Philosophers Discuss Education* (London: Macmillan).
- Dewey, J. (2016) 『민주주의와 교육』, 이홍우 역, 교육과학사.
- Heidegger, M. (1977) The Question Concerning Technology, (trans.) W. Lovitt, In: *The Question Concerning Technology and Other Essays* (New York: Harper & Row).
- Nancy, J. -L. (1993) *The Experience of Freedom*, (trans.) McDonald, B.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Quinn, V. (1984) To develop autonomy: A critique of R. F. Dearden and two proposals,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18(2), pp. 265-270.
- Standish, P. (2000) In Freedom's Grip, In: Dhillon, P. A. and Standish, P. (Eds) *Lyotard: Just Education* (London: Routledge).
- Yun, S. (2016). Ideals of freedom and the ethics of thought - meaning and mystique, *Ethics and Education* 11(2), pp. 197-212.

국문요약

본고는 천원 오천석의 민주주의 교육에 대한 현대적 의미를 제고한다. 특히 그의 후기 저서에 강조된 민족주의에 대한 논의 또한 요구되는 바이나 본고에서는 천원의 민주주의 교육이념 나타난 자유 개념을 분석하는 것으로 한정짓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오늘날의 시대적 담론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한병철의 논의를 바탕으로 천원의 민주주의의 의미와 평가를 논하고 그의 사상에 내재된 교육철학적 한계를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이를 바탕으로 천원이 궁극적으로 지향하였던 도의적 민주주의 사상을 제고하여 오늘날 픽미세대에게 요구되는 자유 개념을 고찰하도록 한다.

주제어 : 자유, 오천석, 민주주의, 한병철

